

존경하는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언회장님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공동회장님들과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담아 회장님과 조선종교인협의회 모든 분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남과 북의 종교인들은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회장님께서 제안한 금강산 공동모임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의 해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남북 관계가 진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6.15, 8.15 등 공동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위시해서 다양한 형태의 남북 교류가 회복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금번 실무회의를 통해서 남북 종교인 공동모임이 모두의 뜻대로 성사되어서 광복 70주년을 의미 있게 마감하고 나아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회장님의 건강과 조선종교인협의회 발전에 기원하며 조속한 시일에 남북 공동모임을 통해서 뭉치를 바라겠습니다.

2015년 9월 29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